

韓國保健教育學會誌 第15卷 1號(1998. 6)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Vol. 15, No.1(1998)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김복희 · 남철현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I. 서 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분석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 론

우리 신체건강에서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며, 개인 각자가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여자에게는 피부건강과 미용이 모든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구나 꿈고 상상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을 누구나 애용하고 있다(조영옥 1993, 김복희 등 1995).

피부미용에서도 안면피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타인이 볼 수 있으므로 미관상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안면피부관리에서는 피부의 유형과 문제성피부 그리고 안면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잘못된 피부관리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윤여성 1996).

모든 사람은 자기의 피부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부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정해서는 안되며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미용 전문 관리인이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야 정확한 형을 알 수가 있으며 피부형을 정확히 알고 피부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맞는 화장습관을 가져야 한다.

피부관리를 잘못하거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피부병을 앓거나 화장독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수가 많다. 얼굴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로서는 생리적 요인(피지분비이상, 내분비이상, 대사활동이상, 순환계이상), 영양학적 요인(피부세포의 영양결핍, 식습관), 외부환경적 요인(자외선, 방사선, 오염된 공기, 바람,

기온변화, 저온과 고온, 건조공기와 다습한 공기), 심리적 요인(스트레스), 생화학적 요인, 생활요인(수면부족, 피로, 잘못된 다이어트, 운동 부족), 잘못된 피부관리요인(알칼리성 비누과용, 화장품 성분, 잘못 처리된 필링치료, 화장품 사용지식 부족), 내과적 요인(내과질환, 임신 및 출산) 등을 들 수가 있다(윤여성, 1996). 이러한 요인들이 얼굴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람들은 매일 화장품을 사용하고 팩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나 화장품 사용잘못과 잘못된 피부건강관리로 인하여 오히려 효과감소는 물론이고 피부염을 앓는 수도 있다. 또한 약물중독, 나방, 옷 등에 의한 알레르기 현상과 일광, 동상, 화상,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기도 한다(오덕자 등, 1982).

‘미용이란 결점을 보완하여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건강한 피부를 돋보이게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피부관리는 미용의 한 부분으로서 건강한 피부의 조건은 피부표면에 적당한 수분기가 있고 매끈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광택과 생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화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김종대 등, 1994).

피부미용관리는 남녀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여 전문대학에 피부미용학과가 인기하여 많이 신설되고 있으나 김복희, 남철현(1995)과 김명숙(1996)의 논문외에 아직 이에 관하여 발표된 사회학적인 연구 조사결과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행태 등 건강관리측면에서 특히 피부미용지식, 화장행태, 피부질환경험, 피부건강상태와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피부미용에 대

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어 문헌고찰이 어려웠다. 둘째,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영양학적인 관련요소 그리고 화장품의 성분분석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을 임의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세이상 여성으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 1,200명, 경산시, 김천시, 목포시, 김해시 등 중소도시에서 800명 총 2,000명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7개월간이었다. 조사대상자 2,000명중 설문지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잘못 기재된 응답지를 폐기한 1,793(89.7%)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는 대학생을 교육시켜 지역사회 20세이상 여성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직접 면접케하여 자기 기입 또는 조사자가 설문지에 응답내용을 기입토록 하였다.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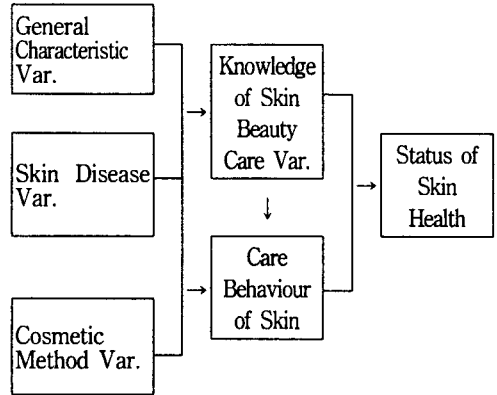
1) 분석모형

건강관리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애용되어 오고 있는 Anderson(1968)의 예측모형에서 선행요인 즉 소인적 요인(Predisposing), 환경적 구성요인(enabling) 그리고 요구요인(need)의 3가지 구성요소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문창진, 1990). 선행요인은 인구학적변수(연령, 결혼상태 등), 사회경제적변수(교육수준, 직업, 출생지 등)와 관련이 있고 환경적 구성요인은 경제상태 등의 변수와 관련있으며 요구요인으로는 질병의 경험과 인지 그리고 대처방법과 관련지식변수와 관련이 있어 피부미용관리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가정은 피부미용관리가 개인 특성, 피부질환 경험, 화장행태 그리고 피부미용 지식관련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피부미용관리가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관리와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변수와 피부질환, 화장행태 및 피부미용지식변수를 분석하고 피부미용관리가 피부건강상태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제변수 각각이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단독으로 미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몇개의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Parsons(1964)은 질병역할(Sick role)에서 자신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Mechanic(1962)의 일반이론에서 질병행위와 관련하여 질병상태에 대한 개인의 자각과 민감성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부미용관리는 일반 신체건강관리와 건강상태는 안면피부건강상태와 같은 입장에서 설명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제 변수는 Fig.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Fig. 1〉 Casual Model of Analysis

2) 변수의 선정

종속변수로는 피부미용지식 10개항, 피부미용 관리변수(마사지 여부, 스크립 사용, 피부관리실 이용의 3개항목) 그리고 피부건강상태변수(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를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변수로서 인구학적변수는 연령, 결혼상태를, 사회경제적변수는 교육수준, 직업, 출생지를, 기타변수는 신체건강상태, 건성, 지성 등 피부성질, 키(신장), 얼굴피부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화장행태변수로는 평균화장시간, 얼굴화장정도, 마사지 횟수와 피부질환변수로서 화장독 경험, 여드름 고생경험을 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에서 키(신장)는 미인의 기준에서 표준보다 커야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피부미용관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변수로 선정하였다. 비만정도 역시 미인의 기준 측면에서 여성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 이므로 비만정도에 따라 피부미용관리행태가 어

편지 파악하고자 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수집된 설문지를 부호화(Coding)하여 SPSS package program에 의거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χ^2 -test, F 검증을 하였다.

피부미용지식수준의 측정은 맛사지 방법의 인지, 자외성 피부장해 인지, 썬크림효과 인지, 여드름 원인 인지, 여드름 예방법 인지, 머리염색의 두발 건강 영향 여부, 맛사지 팩 사용이유,

변수별 점수 배점표

변수	분류	점수	변수	분류	점수
1. 연령	10~19	15	7. 비만정도	매우 비만	4
	20~29	25		약간 뚱뚱한편	3
	30~39	35		보통	2
	40~49	45		마른편	1
	50~59	55	8. 얼굴피부건강상태	좋다	3
	60 +	65		보통	2
2. 학력	무학	0	나쁘다	1	
	초등학교	6	9. 아침화장시간	20분내	20
	중학교학	9		30분내	30
	고등학교	12		1시간내	60
	대학학력	14		10. 저녁화장시간	20분내
3. 경제상태	상	5	30분내		30
	중상	4	1시간내		60
	중	3	11. 얼굴맛사지 횟수	주2회 이상	2
	중하	2		주1회	1
하	1	2주 1회		0.5	
4. 결혼상태	미결혼	1		한달 1회	0.25
	유배우자	0	3개월에 1회	0.08	
5. 신체건강상태	아주 건강	5	6개월에 1회	0.04	
	건강한 편	4	12. 화장품 부작용유무	없다	1
	보통	3		있다	0
	나쁜 편	2	13. 맛사지 경험유무	있다	1
	아주 나쁨	1		없다	0
6. 키(cm)	150~154	152.5	14. 썬크림 사용유무	사용안함	1
	155~159	157.5		봄·여름에만 사용	0
	160~164	162.5		사계절 사용	0
	165~169	167.5		기타	0
	170 이상	170.0			

체질에 맞는 팩제품의 인지, 팩을 선택시 피부성질 고려 지식 등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각각에 같은 비중을 두고 정답은 2점, 모른다는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를 상위(14~20점), 중위(8~13점), 하위(1~7점) 군으로 하였다. 변수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변수별 점수 배점표는 다음과 같다.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안면 피부질환

1)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경험

피부질환은 증상이 느낌에 따라 가렵고 화끈거리며 통증을 느끼게 되는 형태와 증상이 보이는 형태에 따라 노란 여드름, 농포, 화농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화장품으로 인한 질환은 주로 피부염과 알레르기 질환이 대부분으로 다형홍반 즉, 가려운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붉게 부어 오르고 포진이 생기기도 하며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감염이 되면 통증이 있어 부어 오르고 열과 화농이 생기기도 한다(김종대 1996, 안성구의 1994).

피부색깔은 색소(Pigment)와 혈색(Blood color)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부의 두께는 1~2mm 정도여서 손상되기가 쉽다(Murphy et al. 1994; 김종대 등 1994).

다형홍반은 다양한 임상양상 즉 홍반성 반점, 수포, 팽진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젊은 성인에 많이 발생하며 22~37%는 재발하나 경증환자는 2~3주 내에 자연치유되기도 하여 중증은 6~8주 지속되기도 한다(안성구의 1994).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즉 화장독의 경험은 있다가 43.3%였다<표 1-1>.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4.0%, 40세 이상에서 42.2%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화장품 사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피부질환 경험자는 대학졸업자 이상에서 48.0%로 가장 높았고 고졸자에서 37.3%로 가장 낮았다(P<0.001). 이는 대학졸업자가 중,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화장품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에서 피부질환 경험률이 41.2%로 가장 낮았으며 유배우자나 미혼자보다 독신자에서 52.2%로 가장 높았다.

경제상태별로 보면 상류층에서 50.6%로 피부질환 경험률이 가장 높았는데(P<0.01) 이는 중하류층보다 상류층이 화장품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출신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출신자가 46.5%로 가장 높았는데(P<0.01) 이 역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 출신자보다 여러가지 화장품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체건강상태별로 보면 피부질환 경험률은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에서 45.2%로, 몸매가 비만하다는 응답자에서 51.5%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얼굴피부성질별로 보면 지성에서 48.4%로 가장 높았고 복합성 45.5%, 중성 39.9%의 순이었다(P<0.05).

김복희, 남철현(1995)의 연구에서 화장독 원인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화장품과 피부가 맞지 않아서가 75.7%로 가장 높았고 잘못 사용이 6.3%, 화장품이 나빠서가 5.6%로 나타나 화장품으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안면피부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

피부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자는 48.9%로 반수에 가까웠다<표 1-2>.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율은 20대에서 59.0%로, 학생에서 62.0%로, 미혼자에서 60.0%로, 경제상태

<표 1-1>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경험

구 분	없다 56.7 (1016)	있다 43.3 (777)	계 100.0 (1793)
연령(세)			
20-29	56.0	44.0	
30-39	56.7	43.3	100.0 (686)
40+	57.8	42.2	100.0 (735)
	$\chi^2=0.32749$	df=2	p>0.05
결혼상태			
미혼	56.5	43.5	
배우자	57.4	42.6	100.0 (708)
독신(이혼, 별거, 사별)	47.8	52.2	100.0(1016)
	$\chi^2=2.41605$	df=2	p>0.05
출신지역			
대도시	53.5	46.5	
중도시	55.7	44.3	100.0 (810)
읍면	61.9	38.1	100.0 (413)
	$\chi^2=9.98910$	df=2	p<0.01
교육수준			
중이하	56.0	44.0	
고졸	62.7	37.3	100.0 (225)
대학학력	52.0	48.0	100.0 (697)
	$\chi^2=18.05785$	df=2	p<0.001
직업			
부	58.8	41.2	
학생	54.3	45.7	100.0 (888)
직장인 및 기타	54.9	45.1	100.0 (495)
	$\chi^2=3.24304$	df=2	p>0.05
경제상태			
상	49.4	50.6	
중	59.5	40.5	100.0 (346)
하	54.1	45.9	100.0(1155)
	$\chi^2=11.89713$	df=2	p<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56.3	43.7	
보통	57.4	42.6	100.0 (973)
나쁘다	54.8	45.2	100.0 (716)
	$\chi^2=0.35156$	df=2	p>0.05
키(cm)			
150-154	65.4	34.6	
155-159	55.6	44.4	100.0 (182)
160-164	55.6	44.4	100.0 (684)
165이상	56.3	43.7	100.0 (675)
	$\chi^2=6.32667$	df=3	p>0.05
비만정도			
매우비만	48.5	51.5	
약간	58.9	41.1	100.0 (66)
뚱뚱한편	56.0	44.0	100.0 (589)
보통	56.0	44.0	100.0 (920)
마른편	56.0	44.0	100.0 (218)
	$\chi^2=3.23150$	df=3	p>0.05
얼굴피부성질			
건성	60.2	39.8	
지성	51.6	48.4	100.0 (497)
중성	60.1	39.9	100.0 (529)
복합성	54.5	45.5	100.0 (466)
	$\chi^2=10.78868$	df=3	p<0.05

가 하류층에서 55.8%로, 대도시 출신자에서 52.3%로 여드름 고생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일반건강상태가 보통에서 비만정도가 매우 비만에서 각각 타군보다 여드름 경험률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키가 165cm이상자에서

〈표 1-2〉 안면피부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

구 분	없다		있다		계
	51.1 (916)		48.9 (877)		
연령(세)					
20-29	41.0		59.0		
30-39	54.7		45.3		100.0 (686)
40+	62.6		37.4		100.0 (735)
	$\chi^2=51.82046$		df=2		p<0.001
결혼상태					
미혼	40.0		60.0		100.0 (708)
유배우자	59.4		40.6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42.0		58.0		100.0 (69)
	$\chi^2=65.70011$		df=2		p<0.001
출신지역					
대도시	47.7		52.3		100.0 (810)
중소도시	51.6		48.4		100.0 (413)
읍면	55.6		44.4		100.0 (570)
	$\chi^2=8.53363$		df=2		p<0.05
교육수준					
중이하	59.1		40.9		100.0 (225)
고졸	57.0		43.0		100.0 (697)
대학학력	44.3		55.7		100.0 (871)
	$\chi^2=31.38952$		df=2		p<0.001
직업					
주부	58.3		41.7		100.0 (888)
학생	38.0		62.0		100.0 (495)
직장인 및 기타	51.2		48.8		100.0 (410)
	$\chi^2=52.69528$		df=2		p<0.001
경제상태					
상	53.5		46.5		100.0 (346)
중	52.1		47.9		100.0(1155)
하	44.2		55.8		100.0 (292)
	$\chi^2=6.85738$		df=2		p<0.05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51.8		48.2		100.0 (973)
보통	50.1		49.9		100.0 (716)
나쁘다	51.0		49.0		100.0 (104)
	$\chi^2=0.45496$		df=2		p>0.05
키(cm)					
150-154	63.7		36.3		100.0 (182)
155-159	54.1		45.9		100.0 (684)
160-164	48.6		51.4		100.0 (675)
165이상	40.5		59.5		100.0 (252)
	$\chi^2=27.16328$		df=3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43.9		56.1		100.0 (66)
약간 뚱뚱한편	51.6		48.4		100.0 (589)
보통	51.5		48.5		100.0 (920)
마른편	50.0		50.0		100.0 (218)
	$\chi^2=1.58723$		df=3		p>0.05
얼굴피부성질					
건성	69.2		30.8		100.0 (497)
지성	33.1		66.9		100.0 (529)
중성	59.4		40.6		100.0 (466)
복합성	39.9		60.1		100.0 (301)
	$\chi^2=162.18000$		df=3		p<0.001

59.5%로 가장 높아 키가 클수록 여드름으로 고생한 응답자가 유의하게 많았다($P<0.001$).

피부가 지성인 응답자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복합성이 60.1%로 중성 40.6%, 건성 30.8%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화장법과 관련요인

1) 자신의 얼굴 화장정도

자신의 얼굴 화장정도는 보통이 46.2%로 가장 높았고 옅다가 21.5%, 아주 옅다가 17.8%, 짙다가 14.6%의 순이었다<표 2-1>. 화장이 옅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옅다는 중졸이하자에서, 학생에서, 중류층에서, 미혼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고 약간 짙다는 응답률은 고졸자에서, 직장인 및 기타에서, 상류층에서, 독신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상당히 높았다($P<0.001$). 짙다는 중소도시 출신자에서, 옅다는 읍면지역 출신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1$).

건강상태별로 보면 짙은 화장은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에서 21.2%, 옅은 화장은 몸매가 마른편에서 18.8%로 타군보다 높았으며 매우 비만자에서 22.7%로 타군보다 높았다($P<0.01$).

질게 화장하는 경우는 얼굴피부상태의 성질이 지성이라는 응답자에서 20.2%로, 옅게 하는 경우는 건성인 응답자에서 23.7%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본 조사에서 옅다는 39.3%로 김, 남(1995)의 조사에서 보인 옅다의 47.1%보다 낮았고 짙다의 14.1%보다 약간 높았다. 이로써 화장을 점차 알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안면맞사지 횟수

안면맞사지 횟수는 6개월에 1회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주 1회가 17.8%, 한달 1회가 16.5%, 2주 1회가 15.2%, 주 1회 이상이 14.7%의 순이었다<표 2-2>.

특성별로 보면 20대에서는 6개월에 1회가 33.4%, 주 1회가 18.1%의 순이었고 30대에서도 6개월에 1회가 24.1%, 한달 1회가 19.6%의 순으로서 20대가 30대보다 자주 맞사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P<0.01$).

교육수준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직업별에서는 가정주부에서는 한달 1회가 19.7%로 학생과 직장인에서는 주 1회가 각각 16.6%와 22.9%로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는 직장인과 학생은 외출을 많이 하고 대인관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상태가 상류층의 경우 주 1회가 22.5%로, 중류층은 6개월에 1회가 28.7%로 하류층은 6개월에 1회가 46.2%로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는 맞사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므로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유배우자에서 6개월에 1회가 25.8%로 타군보다 낮았고 독신자에서 6개월에 1회가 40.6%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다($P<0.01$). 독신자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체건강상태별로는 나쁘다가 6개월에 1회와 1개월에 1회가 각각 44.2%와 20.2%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고 건강한 경우 6개월에 1회가 28.1%, 주 1회가 18.9%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표 2-1〉 자신의 얼굴 화장정도

구 분	약간 길다 14.6(261)	보통 46.2(828)	얇다 21.5(385)	아주 얇다 17.8(319)	계 100.0 (1793)
연령(세)					
20-29	14.9	42.3	22.4	20.4	100.0 (686)
30-39	15.1	49.0	20.8	15.1	100.0 (735)
40+	12.9	47.8	21.0	18.3	100.0 (372)
	$\chi^2=10.80725$	df=6	p>0.05		
결혼상태					
미혼	14.7	40.1	24.7	20.5	100.0 (708)
유배우자	13.3	51.0	20.3	15.5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31.9	37.7	5.8	24.6	100.0 (69)
	$\chi^2=47.02923$	df=6	p<0.001		
출신지역					
대도시	14.4	46.2	20.2	19.1	100.0 (810)
중소도시	17.9	48.7	22.0	11.4	100.0 (413)
읍면	12.3	44.4	22.8	20.5	100.0 (570)
	$\chi^2=20.05233$	df=2	p<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13.3	47.6	24.0	15.1	100.0 (225)
고졸	15.2	51.5	18.4	14.9	100.0 (697)
대학학력	14.4	41.6	23.3	20.8	100.0 (871)
	$\chi^2=22.53774$	df=6	p<0.001		
직업					
주부	12.8	50.1	20.0	17.0	100.0 (888)
학생	12.9	39.6	23.2	17.5	100.0 (495)
직장인 및 기타	20.2	45.6	22.4	11.7	100.0 (410)
	$\chi^2=41.61524$	df=6	p<0.001		
경제상태					
상층	27.7	40.8	17.9	13.6	100.0 (346)
중층	11.8	48.2	22.5	17.5	100.0(1155)
하	9.9	44.5	21.6	24.0	100.0 (292)
	$\chi^2=67.59488$	df=6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15.7	45.5	20.6	18.2	100.0 (973)
보통하다	12.0	49.4	22.5	16.1	100.0 (716)
나쁘다	21.2	29.4	23.1	26.0	100.0 (104)
	$\chi^2=21.02585$	df=6	p<0.01		
키(cm)					
150-154	9.9	45.6	23.1	21.4	100.0 (182)
155-159	15.2	46.3	21.8	16.7	100.0 (684)
160-164	14.5	48.6	19.6	17.3	100.0 (675)
165이상	16.3	39.7	24.6	19.4	100.0 (252)
	$\chi^2=11.46118$	df=9	p>0.05		
비만정도					
매우비만	7.6	43.9	25.8	22.7	100.0 (66)
약간 뚱뚱한편	16.3	44.7	19.7	19.4	100.0 (589)
보통	12.9	50.0	20.8	16.3	100.0 (920)
마른편	18.8	34.9	28.0	18.3	100.0 (218)
	$\chi^2=25.97413$	df=9	p<0.01		
얼굴피부성질					
건성성질	11.9	45.9	23.7	18.5	100.0 (497)
지중성성질	20.2	42.0	21.6	16.3	100.0 (529)
지중습성	11.2	46.8	21.9	20.2	100.0 (466)
특습성	14.3	53.2	16.9	15.6	100.0 (301)
	$\chi^2=30.34744$	df=9	p<0.001		

〈표 2-2〉 안면맞사지 횟수

구 분	주1회 이상 14.7(263)	주1회 17.8(319)	2주 1회 15.2(273)	한달 1회 16.5(296)	3개월에 1회 6.1(110)	6개월에 1회 29.7(532)	계 100.0(1793)
연령(세)							
20-29	14.7	18.1	15.2	13.8	4.8	33.4	100.0(686)
30-39	14.7	17.6	16.3	19.6	7.8	24.1	100.0(735)
40+	14.5	17.7	13.2	15.3	5.4	33.0	100.0(372)
	$\chi^2=27.76014$		df=10	p<0.01			
결혼상태							
미혼	13.0	17.8	14.1	15.3	5.6	34.2	100.0(708)
유배우자	16.4	18.1	15.6	17.6	6.5	25.8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5.8	13.0	21.7	13.0	6.8	40.6	100.0 (69)
	$\chi^2=25.93079$		df=10	p<0.01			
출신지역							
대도시	14.2	17.3	14.4	17.0	6.2	30.9	100.0(810)
중도시	13.6	20.8	17.9	14.0	6.1	27.6	100.0(413)
읍면	16.1	16.3	14.4	17.5	6.1	29.5	100.0(570)
	$\chi^2=9.83879$		df=10	p>0.05			
교육수준							
중이하	16.9	12.9	14.2	22.7	4.4	28.9	100.0(225)
고졸	13.6	18.8	15.9	15.9	6.6	29.1	100.0(697)
대학학력	14.9	18.3	14.9	15.4	6.2	30.3	100.0(871)
	$\chi^2=12.78613$		df=10	p>0.05			
직업							
주부	15.4	16.1	16.2	19.7	6.8	25.8	100.0(888)
학생	11.1	16.6	15.2	12.3	5.7	39.2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17.3	22.9	13.2	14.6	5.4	26.6	100.0(410)
	$\chi^2=49.92727$		df=10	p<0.001			
경제상태							
상층	21.7	22.5	15.6	16.2	4.9	19.1	100.0(346)
중층	14.0	18.6	16.2	16.0	6.5	28.7	100.0(1155)
하	8.9	8.9	11.0	18.8	6.2	46.2	100.0(292)
	$\chi^2=83.26797$		df=10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16.8	18.9	15.6	14.7	6.0	28.1	100.0(973)
보통	11.7	17.6	15.9	18.4	6.6	29.7	100.0(716)
나쁘다	15.4	8.7	6.7	20.2	4.8	44.2	100.0(104)
	$\chi^2=31.21205$		df=10	p<0.001			
키(cm)							
150-154	16.5	7.7	9.9	18.7	5.5	41.8	100.0(182)
155-159	13.7	19.0	14.6	15.9	6.7	30.0	100.0(684)
160-164	14.8	20.0	17.8	17.8	4.7	24.9	100.0(675)
165이상	15.5	15.9	13.9	13.1	8.7	32.9	100.0(252)
	$\chi^2=44.65319$		df=15	p<0.001			
비만정도							
비만	16.7	18.2	12.1	15.2	12.1	25.8	100.0(66)
약간	15.1	15.3	13.9	20.5	5.6	29.5	100.0(589)
보통	14.8	19.1	16.5	15.2	5.7	28.7	100.0(920)
마른편	12.4	18.8	14.2	11.5	7.8	35.3	100.0(218)
	$\chi^2=25.03321$		df=15	p<0.05			
얼굴피부상태							
건강	14.3	14.7	17.5	16.3	4.8	32.4	100.0(497)
건강	14.9	23.1	12.1	15.5	5.5	28.9	100.0(529)
건강	13.9	15.7	15.0	16.7	7.9	30.7	100.0(466)
건강	15.9	16.9	17.3	18.3	6.6	24.9	100.0(301)
	$\chi^2=27.83866$		df=15	p<0.05			

키가 154cm이하에서 6개월에 1회 맞사지 한다는 응답자는 41.8%로 키가 작을수록 맞사지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키가 큰 편이 적은 편보다 미용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만정도에서는 마른편이 6개월에 1회가 35.3%로 타군보다 약간 높았다($P<0.05$).

얼굴피부성질에서는 6개월에 1회는 건성에서 32.4%, 주 1회는 23.1%로 지성에서, 한달 1회는 복합성에서 18.3%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맞사지(massage)는 오래 전부터 피부미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당한 운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것처럼 얼굴맞사지로 가벼운 피부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피부는 대체로 20세가 지나면서 성장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늦어도 25세를 넘으면 맞사지를 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김종대 등 1996).

3. 피부미용관리지식과 관련요

1) 팩종류 선택시 자신의 피부성질 감안여부

팩종류를 선택할 때 본인의 피부성질을 감안하여 선택한다는 64.3%였다<표 3-1>. 자신의 피부성질을 감안하는 경우는 20대에서 67.3%, 대졸이상자에서 67.5%, 상류층에서 76.0%, 미혼자에서 67.5%, 대도시 출신지역에서 67.7%로서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자에서 66.4%, 키가 165cm 이상 큰 응답자에서 70.6%, 얼굴피부성질이 지성인 응답자에서 69.4%로 타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직업별로는 피부성질을 감안한다는 율은 직장인에서 67.1%, 마른 몸매라고 자기평

가한 응답자에서 66.5%, 얼굴피부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서 70.7%로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2) 사용한 맞사지 팩의 부작용 인지도

맞사지 팩의 부작용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55.1%로 반수를 넘었으며 알고 주의한다가 27.4%, 알지만 무시한다가 17.5%였다<표 3-2>.

이를 알고 있어서 주의한다는 경우는 30대에서 31.0%, 경제상태가 상류층에서 35.8%, 유배우자에서 28.6%, 대도시 출신자에서 30.7%, 키가 165이상자에서 29.0%, 몸매가 비만한자에서 30.3%로 타군보다 각각 유의성있게 높았다. 반면 대학학력자에서 28.9%, 직장인에서 29.3%, 피부가 복합성인자에서 29.6%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모른다는 20대에서 55.2%, 하류층에서 62.7%, 미혼자에서 53.5%, 읍면 출신자에서 63.9%, 키가 154cm이하에서 67.6%, 매우 비만한 자에서 50.0%, 피부성질이 중성인 자에서 59.4%로 각각 타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반면 모른다는 중졸이하자에서 62.7%, 가정주부에서 56.9%, 건강이 나쁘다는 자에서 62.5%, 얼굴피부성질이 중성인자에서 59.4%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색소는 타르색소인데 석유에서 분리하여 합성되며 90여종의 타르색소 대부분이 발암성이다. 또한 화장품에는 약 20여종의 안료가 쓰이는데 안료란 그림물감이나 크레파스의 원료와 같이 납, 산화철, 카드뮴 등의 금속화합물이며 불순물에 수은, 납, 아연, 크롬 등이 있어 얼굴에 부작용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해로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화장품에 쓰이는 향료는 거의 합성제품이며 부패와 산화방지용으

〈표 3-1〉 팩종류 선택시 자신의 피부성질 감안여부

구 분	충분히 감안한 선택 64.3 (1153)	관심없이 선택 35.7 (640)	계 100.0(1793)
연령(세)			
20-29	67.3	32.7	100.0(686)
30-39	65.7	34.3	100.0(735)
40+	55.9	44.1	100.0(372)
	$\chi^2=14.81249$	df=2	p<0.001
결혼상태			
미혼	67.5	32.5	100.0 (708)
유배우자	63.3	36.7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46.4	53.6	100.0 (69)
	$\chi^2=13.29705$	df=2	p<0.01
출신지역			
대도시	67.7	32.3	100.0(810)
중소도시	65.1	34.9	100.0(413)
읍면	58.9	41.1	100.0(570)
	$\chi^2=11.21015$	df=2	p<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54.7	45.3	100.0(225)
고졸	63.4	36.6	100.0(697)
대학학력	67.5	32.5	100.0(871)
	$\chi^2=13.24141$	df=2	p<0.01
직업			
주부	67.1	33.3	100.0(888)
학생	66.7	33.3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67.1	32.9	100.0(410)
	$\chi^2=5.17329$	df=2	p<0.05
경제상태			
상	76.0	24.0	100.0(346)
중	63.8	36.2	100.0(1155)
하	52.4	47.6	100.0(292)
	$\chi^2=38.81960$	df=2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66.4	33.6	100.0(973)
보통	62.8	37.2	100.0(716)
나쁘다	54.8	45.2	100.0(104)
	$\chi^2=6.59535$	df=2	p<0.05
키(cm)			
150-154	44.5	55.5	100.0(182)
155-159	63.3	36.7	100.0(684)
160-164	68.3	31.7	100.0(675)
165이상	70.6	29.4	100.0(252)
	$\chi^2=40.46580$	df=3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59.1	40.9	100.0(66)
약간 동등한편	61.1	38.9	100.0(589)
보통	66.2	33.8	100.0(920)
마른편	66.5	33.5	100.0(218)
	$\chi^2=5.27997$	df=3	p>0.05
얼굴피부성질			
건성	62.0	38.0	100.0(497)
지성	69.4	30.6	100.0(529)
중성	57.9	42.1	100.0(466)
복합성	69.1	30.9	100.0(301)
	$\chi^2=18.34956$	df=3	p<0.001

〈표 3-2〉 사용한 맛사지 팩의 부작용 인지도

구 분	모른다 55.1 (988)	알고 있으나 무시한다 17.5 (314)	알고 있어 주의한다 27.4 (491)	계 100.0(1793)
연령(세)				
20-29	55.2	18.4	26.4	100.0(686)
30-39	55.1	13.9	31.0	100.0(735)
40+	54.8	23.1	22.0	100.0(372)
	$\chi^2=20.18864$	df=4	p<0.01	
결혼상태				
미혼	53.5	19.4	27.1	100.0(708)
유배우자	55.2	16.1	28.6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69.6	18.8	11.6	100.0 (69)
	$\chi^2=12.35110$	df=4	p<0.05	
출신지역				
대도시	50.4	18.9	30.7	100.0(810)
중소도시	52.3	20.8	26.9	100.0(413)
읍면	63.9	13.2	23.0	100.0(570)
	$\chi^2=28.85046$	df=4	p<0.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62.7	15.6	21.8	100.0(225)
고졸	56.0	16.8	27.3	100.0(697)
대학학력	52.5	18.6	28.9	100.0(871)
	$\chi^2=8.16294$	df=4	p>0.05	
직업				
주부	56.9	15.7	27.5	100.0(888)
학생	56.0	18.4	25.7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50.2	20.5	29.3	100.0(410)
	$\chi^2=7.43945$	df=4	p<0.05	
경제상태				
상	46.0	18.2	35.8	100.0(346)
중	55.9	17.5	26.6	100.0(1155)
하	62.7	16.8	20.5	100.0(292)
	$\chi^2=22.90643$	df=4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53.5	19.3	27.1	100.0(973)
보통	56.1	15.4	28.5	100.0(716)
나쁘다	62.5	15.4	22.1	100.0(104)
	$\chi^2=6.97575$	df=4	p<0.05	
키(cm)				
150-154	67.6	11.0	21.4	100.0(182)
155-159	54.4	18.5	27.1	100.0(684)
160-164	53.3	20.0	26.7	100.0(675)
165이상	52.8	18.3	29.0	100.0(252)
	$\chi^2=16.55460$	df=6	p<0.05	
비만정도				
매우비만	50.0	19.7	30.3	100.0(66)
약간 동등한편	59.6	16.3	24.1	100.0(589)
보통	50.7	19.3	30.0	100.0(920)
마른편	63.3	12.4	24.3	100.0(218)
	$\chi^2=19.71424$	df=6	p<0.01	
얼굴피부성질				
건성	53.9	18.3	27.8	100.0(497)
지성	54.1	16.8	29.1	100.0(529)
중성	59.4	17.0	23.6	100.0(466)
복합성	52.2	18.3	29.6	100.0(301)
	$\chi^2=6.35811$	df=6	p<0.05	

로 방부제인 살리실산, 페놀, 크레졸 등을 쓰기도 한다. 이상의 화학물질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미량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조영옥 1993; 대한피부과학회 1994, 김복희, 남철현 1995). 팩의 성분에 따라 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맛사지 할때 방향과 힘을 주는 부위 인지도

맛사지 종류에는 두피에 대한 두피메니퓰레이션(Scalp manipulation), 얼굴맛사지(facial massage), 전신맛사지(body massage)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본인이 맛사지 하는 경우 이마, 코, 입, 볼, 눈, 목, 손발 등 부위에 따라 맛사지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자신이 맛사지를 할때 방향과 힘을 주는 부위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에서는 잘 모른다가 48.7%로 가장 높았고, 알고 있으나 그대로 하지 않는다가 38.4%, 잘 알고 시행한다가 12.9%였다<표 3-3>. 잘 모른다는 40대 이상에서 51.9%, 중졸이하에서 63.6%, 경제상태가 하류층에서 57.9%, 독신자에서 65.2%, 읍면 출신자에서 55.6%, 피부성질이 중성인자에서 55.8%로 각각 타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 그리고 잘 모른다는 학생 51.1%, 신체건강상태가 나쁘다라는 응답자에서 54.8%, 키 154cm이하에서 54.9%. 매우 비만자에서 57.6%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4) 태양 자외선의 피부유해 인지도

태양의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응답률은 87.2%(대단히 나쁘다는 53.4%, 약간 나쁘다는

33.8%)로 대부분 자외선의 피부유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통이다와 모른다가 12.7%나 되었다 <표 3-4>.

특성별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40대이상에서, 중졸이하에서 경제상태가 하류층에서, 중소도시 출신자에서, 신체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에서, 신장은 154cm이하자에서, 피부성질이 건성과 중성인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가정주부에서, 독신자에서 약간 비만한 자에서 유해도 인지율이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5) 화장품 및 팩과 체질과의 관계유무에 대한 의견

화장품 및 팩성분이 한방사상의학적 체질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관계가 있다가 66.7%였다(표 3-5). 특성별로 보면 관계가 있다는 직장인에서 71.3%, 미혼자에서 71.4%, 읍면지역 출신자에서 70.4%, 몸매가 보통인자에서 69.6%, 피부성질이 복합성에서 71.6%로 각각 타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또한 연령이 20대에서, 대학학력자 이상에서, 경제상태 중류층에서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관계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6) 일반적 특성별 피부미용관련지식태도수준의 상중하 점수의 분포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피부미용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개문항에 대하여 설문하였으며 분석은 배점을 정답은 2점, 모른다는 1점, 오답은 0점으로 하여 20점

〈표 3-3〉 맞사지할 때 방향과 힘을 주는 부위 인지도

구 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나 그대로 안함	잘 모른다	계
	12.9(232)	38.4(688)	48.7(873)	100.0(1793)
연령(세)				
20-29	12.2	36.3	51.5	100.0(686)
30-39	14.7	40.8	44.5	100.0(735)
40+	10.8	37.4	51.9	100.0(372)
	$\chi^2=9.91186$	df=4	p<0.05	
결혼상태				
미혼	12.4	38.3	49.3	100.0(708)
유배우자	13.4	39.5	47.1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11.6	23.2	65.2	100.0 (69)
	$\chi^2=9.58265$	df=4	p<0.05	
출신지역				
대도시	14.8	42.5	42.7	100.0(810)
중소도시	10.2	39.0	50.8	100.0(413)
읍면	12.3	32.1	55.6	100.0(570)
	$\chi^2=26.20379$	df=4	p<0.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10.7	25.8	63.6	100.0(225)
고졸	12.5	39.7	47.8	100.0(697)
대학학력	13.9	40.5	45.6	100.0(871)
	$\chi^2=24.38061$	df=4	p<0.001	
직업				
주부	12.5	40.3	47.2	100.0(888)
학생	13.5	35.4	51.1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13.2	37.8	49.0	100.0(410)
	$\chi^2=3.38763$	df=4	p>0.05	
경제상태				
상	17.1	41.9	41.0	100.0(346)
중	12.1	39.2	48.7	100.0(1155)
하	11.3	30.8	57.9	100.0(292)
	$\chi^2=20.62761$	df=4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11.8	38.1	50.1	100.0(973)
보통	14.2	39.8	45.9	100.0(716)
나쁘다	14.4	30.8	54.8	100.0(104)
	$\chi^2=6.30360$	df=4	p>0.05	
키(cm)				
150-154	11.0	34.1	54.9	100.0(182)
155-159	15.5	35.5	49.0	100.0(684)
160-164	11.1	41.8	47.1	100.0(675)
165이상	12.3	40.1	47.6	100.0(252)
	$\chi^2=12.25008$	df=6	p>0.05	
비만정도				
매우비만	12.1	30.3	57.6	100.0(66)
약간 뚱뚱한편	12.4	38.4	49.2	100.0(589)
보통	13.3	39.6	47.2	100.0(920)
마른편	13.3	35.8	50.9	100.0(218)
	$\chi^2=3.87113$	df=6	p>0.05	
얼굴피부성질				
건조	11.5	39.2	49.3	100.0(497)
지성	15.7	38.4	45.9	100.0(529)
습성	11.2	33.0	55.8	100.0(466)
복합성	13.3	45.2	41.5	100.0(301)
	$\chi^2=21.13529$	df=6	p<0.01	

〈표 3-4〉 태양 자외선의 피부유해 인지도

구 분	대단히 나쁘다 53.4(958)	약간 나쁘다 33.8(606)	보통이다 7.6(137)	잘 모르겠다 5.2(92)	계 100.0(1793)
연령(세)					
20-29	52.9	34.3	8.5	4.4	100.0(686)
30-39	55.9	31.4	8.2	4.5	100.0(735)
40+	49.5	37.6	5.1	7.8	100.0(372)
	$\chi^2=15.35189$	df=6	p<0.05		
결혼상태					
미혼	55.5	32.1	8.6	3.8	100.0(708)
유배우자	51.8	35.2	7.1	5.9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55.5	30.4	5.8	7.2	100.0 (69)
	$\chi^2=8.48345$	df=6	p>0.05		
출신지역					
대도시	58.4	30.6	6.8	4.2	100.0(810)
중소도시	46.7	39.5	7.7	6.1	100.0(413)
읍면	51.2	30.4	8.8	5.8	100.0(570)
	$\chi^2=18.37359$	df=6	p<0.01		
교육수준					
중이하	40.0	40.4	6.7	12.9	100.0(225)
고졸	50.2	35.9	8.9	5.0	100.0(697)
대학학력	59.5	30.4	6.9	3.2	100.0(871)
	$\chi^2=56.65232$	df=6	p<0.001		
직업					
주부	51.8	34.3	7.8	6.1	100.0(888)
학생	51.5	35.4	8.9	4.2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59.3	30.7	5.9	4.1	100.0(410)
	$\chi^2=10.81101$	df=6	p>0.05		
경제상태					
상	52.6	36.1	6.4	4.9	100.0(346)
중	53.8	33.7	4.1	4.1	100.0(1155)
하	53.1	31.5	9.6	9.6	100.0(292)
	$\chi^2=18.05464$	df=6	p<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53.5	33.3	8.4	4.7	100.0(973)
보통	53.5	34.9	7.3	4.3	100.0(716)
나쁘다	51.9	30.8	2.9	14.4	100.0(104)
	$\chi^2=23.37247$	df=6	p<0.001		
키(cm)					
150-154	42.9	33.5	5.5	18.1	100.0(182)
155-159	53.8	34.5	8.3	3.4	100.0(684)
160-164	56.4	33.9	5.8	3.9	100.0(675)
165이상	52.0	31.7	12.3	4.0	100.0(252)
	$\chi^2=84.18925$	df=9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51.5	33.3	10.6	4.5	100.0(66)
약간 뚱뚱한편	50.6	35.7	7.3	6.5	100.0(589)
보통	55.8	32.7	7.3	4.2	100.0(920)
마른편	51.8	33.5	9.2	5.5	100.0(218)
	$\chi^2=8.10530$	df=9	p>0.05		
얼굴피부성질					
건조성	55.7	30.6	7.2	6.4	100.0(497)
지성성	50.7	36.3	9.8	3.2	100.0(529)
중성성	47.0	39.1	7.5	6.4	100.0(466)
복합성	64.5	26.6	4.7	4.3	100.0(301)
	$\chi^2=36.99225$	df=9	p<0.001		

〈표 3-5〉 화장품 및 팩과 체질과의 관계유무에 대한 의견

구 분	예 66.7(1196)	아니오 33.3(597)	계 100.0(1793)
연령(세)			
20-29	69.3	30.7	100.0(686)
30-39	66.0	34.0	100.0(735)
40+	62.6	37.4	100.0(372)
	$\chi^2=4.74187$	df=2	p>0.05
결혼상태			
미혼	71.4	28.6	100.0(708)
유배우자	63.1	36.9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58.3	41.7	100.0 (69)
	$\chi^2=13.39720$	df=2	p<0.01
출신지역			
대도시	67.7	32.3	100.0(810)
중소도시	60.1	39.9	100.0(413)
읍면	70.4	29.6	100.0(570)
	$\chi^2=10.75135$	df=2	p<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60.1	39.9	100.0(225)
고졸	67.5	32.5	100.0(697)
대학학력	67.7	32.3	100.0(871)
	$\chi^2=4.42150$	df=2	p>0.05
직업			
주부	61.8	38.2	100.0(888)
학생	69.7	30.3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71.3	28.7	100.0(410)
	$\chi^2=13.22254$	df=2	p<0.01
경제상태			
상	61.3	38.7	100.0(346)
중	69.2	31.8	100.0(1155)
하	67.9	32.1	100.0(292)
	$\chi^2=5.41274$	df=2	p>0.05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67.4	32.6	100.0(973)
보통	66.1	33.9	100.0(716)
나쁘다	63.8	36.2	100.0(104)
	$\chi^2=0.62955$	df=2	p>0.05
키(cm)			
150-154	57.0	43.0	100.0(182)
155-159	62.6	37.4	100.0(684)
160-164	71.9	28.1	100.0(675)
165이상	70.5	29.5	100.0(252)
	$\chi^2=20.07073$	df=3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63.3	36.7	100.0(66)
약간 뚱뚱한편	62.1	37.9	100.0(589)
보통	69.6	30.4	100.0(920)
마른편	67.5	32.5	100.0(218)
	$\chi^2=8.36639$	df=3	p<0.05
얼굴 피부성질			
건성	62.2	37.8	100.0(497)
지성	66.7	33.3	100.0(529)
중성	68.0	32.0	100.0(466)
복합성	71.6	28.4	100.0(301)
	$\chi^2=7.85387$	df=3	p<0.05

만점으로 하였고 1-7점을 하위수준, 8-13점을 중위수준, 14-20점을 상위수준으로 하여 분석처리하였다.

- 1) 맞사지 방법 인지도
- 2) 자외선 피부장해 인지도
- 3) 여드름 원인 인지도
- 4) 선크림 효과의 인지도
- 5) 여드름 예방법 인지도
- 6) 맞사지 부작용 인지
- 7) 그을린 피부맞사지 지식
- 8) 팩선택시 피부성질 감안태도
- 9) 체질과 한약제제 화장품과 팩의 관련성
- 10) 체질과 야채류 화장품과의 관련성

피부미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수준은 평균 10.61±3.4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53.1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사상의학적 체질관련문제를 그 문항에 삽입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이므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상중하위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상위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18.9%였고 하위수준(100점 만점에 35점 이하)은 19.0%였다<표 3-6>.

특성별로 보면 평균점수는 30대에서 11.00±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중하위 수준별로도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직장인에서 10.95±3.37점으로 타직종보다 높았으며 상중하위 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미혼자에서 10.77±3.42점, 대도시 출신자에서 11.10±3.50점, 비만정도가 보통이라는 자에서 11.04±3.49점, 얼굴피부성질이 복합성에서 11.30±3.53점으로 타군보다 높았다.

7) 화장법별 피부미용지식수준 및 상중하분포

피부미용지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화장행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화장행태를 평균 화장시간, 맞사지 횟수, 화장질은정도로 구분하였다. 화장 시간이 30분이상자에서 11.62±3.31점, 20분내는 10.21±3.57점으로 화장시간이 길수록 피부미용지식수준이 높았다(P<0.001).

얼굴맞사지는 주 1회 이상자에서 12.22±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11.65±3.21, 주 2회 10.77±3.38점의 순위로 맞사지를 자주하는 대상자에서 피부미용지식수준은 높았다(P<0.001).

8)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지식수준 및 상중하분포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을 경험한 조사대상자의 피부미용지식수준은 11.05±3.34점으로 경험이 없는 자의 10.27±3.52점보다 높았다(P<0.001). 그리고 피부미용지식점수는 염색하는 사람의 두부에 피부질환 경험자나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각각 11.35±3.42와 10.82±3.32점으로 경험이 없는 자보다 높았다(P<0.001).

이는 피부관련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피부미용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치료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6> 일반적 특성별 피부미용관련지식태도수준의 상중하 점수의 분포

구 분	M±S.D 10.61±3.46	피부미용지식			계 100.0(1793)
		상 18.9(338) 14-20	중 62.2(1115) 8-13	하 19.0(340) 1-7	
연령(세)					
20-29	10.52±3.35	16.8	64.6	18.7	100.0(686)
30-39	11.00±3.56	22.9	60.4	16.7	100.0(735)
40+	9.99±3.37	14.8	61.3	23.9	100.0(372)
	F : 11.02***	$\chi^2=18.94530$	df=4	p<0.001	
결혼상태					
미혼	10.77±3.42	19.4	63.7	16.9	100.0(708)
유배우자	10.60±3.52	19.7	60.0	20.3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9.04±2.52	1.4	78.3	20.3	100.0 (69)
	F : 7.92***	$\chi^2=17.93511$	df=4	p<0.01	
출신지역					
대도시	11.10±3.50	22.8	61.6	15.6	100.0(810)
중소도시	10.50±3.21	16.9	64.6	18.4	100.0(413)
읍면	9.99±3.48	14.6	61.2	24.2	100.0(570)
	F : 17.52***	$\chi^2=27.02803$	df=4	p<0.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9.48±3.46	10.2	59.1	30.7	100.0(225)
고졸	10.35±3.35	17.5	61.5	20.9	100.0(697)
대학학력	11.10±3.46	22.2	63.5	14.4	100.0(871)
	F : 23.45	$\chi^2=42.70637$	df=4	p<0.001	
직업					
주부	10.40±3.45	17.5	60.9	21.6	100.0(888)
학생	10.69±3.53	19.0	63.0	18.0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10.95±3.37	21.7	63.9	14.1	100.0(410)
	F : 3.77*	$\chi^2=11.25960$	df=4	p<0.05	
경제상태					
상	11.22±3.76	23.1	59.2	17.6	100.0(346)
중	10.55±3.33	18.4	63.0	18.5	100.0(1155)
하	10.12±3.52	15.4	62.3	22.3	100.0(292)
	F : 8.64***	$\chi^2=8.00987$	df=4	p>0.05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10.60±3.44	19.1	62.5	18.4	100.0(973)
보통	10.77±3.40	18.6	62.8	18.6	100.0(716)
나쁘다	10.12±3.52	18.3	54.8	22.3	100.0(104)
	F : 5.07**	$\chi^2=4.75545$	df=4	p>0.05	
키(cm)					
150-154	8.81±3.46	10.4	50.0	39.6	100.0(182)
155-159	10.52±3.41	17.8	62.7	19.4	100.0(684)
160-164	11.03±3.36	20.0	66.1	13.9	100.0(675)
165이상	11.02±3.46	24.6	59.1	16.3	100.0(252)
	F : 21.61***	$\chi^2=69.29603$	df=6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10.00±4.05	13.6	57.6	28.8	100.0(66)
약간 뚱뚱한편	10.05±3.29	14.8	64.0	21.2	100.0(589)
보통	11.04±3.49	22.3	60.9	16.8	100.0(920)
마른편	10.47±3.39	17.0	64.2	18.8	100.0(218)
	F : 10.74***	$\chi^2=20.36863$	df=6	p<0.01	
얼굴피부성질					
건성	10.46±3.51	18.3	60.8	20.9	100.0(497)
지성	10.78±3.39	20.6	63.3	16.1	100.0(529)
중성	10.12±3.38	15.7	60.1	24.2	100.0(466)
복합성	11.30±3.53	21.6	65.8	12.6	100.0(301)
	F : 7.93***	$\chi^2=22.47056$	df=6	p<0.001	

*** : p<0.001 ** : p<0.01 * : p<0.05

〈표 3-7〉 화장법별 피부미용지식수준 및 상중하분포

구 분	M±S.D 10.61±3.46	피부미용지식			계 100.0(1793)
		상 18.9(338)	중 62.2(1115)	하 19.0(340)	
집에서 하는 평균화장 시간					
20분내	10.52±3.35	16.7	59.2	24.1	100.0(686)
30분내	11.00±3.56	20.7	68.8	10.5	100.0(735)
30분이상	9.99±3.37	26.9	60.6	12.6	100.0(372)
	F : 20.34***	$\chi^2=54.00171$	df=4	p<0.01	
얼굴맞사지 횟수					
주1회 이상	12.22±3.46	32.7	57.0	10.3	
주1회	11.65±3.21	23.8	65.2	11.0	100.0(708)
2주 1회	10.77±3.38	18.7	65.2	16.1	100.0(1016)
한달 1회	10.09±3.39	14.5	64.2	21.3	100.0 (69)
3개월 1회	10.27±2.81	17.3	63.6	19.1	
6개월 1회	9.46±3.33	11.8	60.0	28.2	
	F : 33.38***	$\chi^2=97.68569$	df=10	p<0.001	
자신의 화장정도					
약간 잘다	11.36±3.45	23.4	67.0	9.6	100.0(810)
보통	10.84±3.29	19.8	63.4	16.8	100.0(413)
없다	10.46±3.53	18.4	60.5	21.0	100.0(570)
아주 없다	9.56±3.54	13.2	57.1	29.8	
	F : 15.59***	$\chi^2=46.19709$	df=6	p<0.001	

*** : p<0.001

〈표 3-8〉 피부질환별 피부미용지식수준 및 상중하분포

구 분	M±S.D 10.61±3.46	피부미용지식			계 100.0(1793)
		상 18.9(338)	중 62.2(1115)	하 19.0(340)	
일반화장품 사용 후 피부 부작용 경험유무					
없다	10.27±3.52	16.8	59.9	23.2	100.0(1016)
있다	11.05±3.34	21.5	65.1	13.4	100.0(777)
	t : -4.79***	$\chi^2=29.47513$	df=2	p<0.001	
머리에 피부질환 경험유무					
없다	10.45±3.45	17.4	62.1	20.5	100.0(1472)
있다	11.35±3.42	25.5	62.6	11.8	100.0(321)
	t : 4.25***	$\chi^2=19.77264$	df=2	p<0.001	
얼굴피부에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유무					
없다	10.40±3.58	19.0	57.5	23.5	100.0(916)
있다	10.82±3.32	18.7	67.0	14.3	100.0(877)
	t : -2.57***	$\chi^2=26.62091$	df=2	p<0.001	

*** : p<0.001 * : p<0.05

4. 피부미용관리행태와 관련요인

1) 피부관리실에 맞사지 경험유무

피부미용관리실을 방문한다는 것은 피부미용에 관심을 더욱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피부관리를 위하여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맞사지 경험을 한 조사대상자는 36.5%였으며 경험이 없다는 자는 63.5%였다<표 4-1>.

맞사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특성별로 보면 30대에서, 대졸이상자에서, 직장인에서, 경제상태가 상류층에서, 유배우자에서, 대도시 출신자에서, 신장이 160-164cm인 자에서 몸매가 매우 비대한 자에서 얼굴피부성질이 지성인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자에서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2) 선크림 사용여부

자외선이 피부에 홍반형성, 색소침착 그리고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권이혁 1993, 남철현 1996). 3,200~3,800Å 파장의 자외선은 상피층(두께 0.05mm) 즉 각화층과 말피기층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진피층에서 흡수되고 강한 홍반작용을 나타낸다. 자외선 조사량이 많으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조직의 부종이 생기며 수포형성과 박피현상이 일어나고 피부궤양을 만들기도 한다. 홍반현상이 이어 색소침착이 생기며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이동하고 한편으로는 색소가 증식한다. 2,800~3,200Å 파장에서는 피부암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강복수 등, 1993).

피부미용관리를 위하여 선크림 사용여부를 보면 봄, 여름에 사용한다가 55.5%로 가장 높았고, 사계절 사용이 8.5%였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가 32.8%였다<표 4-2>.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특성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40.1%, 중졸이하자에서 46.2%, 가정주부에서 35.8%, 경제상태가 하류층에서 41.1%, 독신자에서 66.7%, 중소도시 출신자에서 39.7%, 신체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자에서, 키가 154cm이하자에서, 몸매가 마른 편이라는 자에서, 얼굴피부상태가 중성인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5. 안면피부건강상태와 관련요인

안면피부건강상태는 보통이 61.2%, 나쁘다가 24.5%, 좋다가 14.3%의 순이었다<표 5>. 특성별로 보면 안면피부건강상태가 좋다(17.1%)와 나쁘다(28.4%)는 연령이 20대에서 타군보다 높았으며 나쁘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다(P<0.001).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자에서는 보통이 70.2%로 대학학력자의 56.0%로 훨씬 높았고 좋다(16.1%)와 나쁘다(27.9%)는 대학학력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01).

경제상태별로는 상류층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는 23.4%,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하류층에서 30.8%로 타군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안면피부가 좋다고 나쁘다는 미혼자에서 각각 17.8%와 30.9%로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출신지역별로는 대도시 출신자에서 좋다고 나쁘다가 각각 15.6%와 27.2%로 각각 높았다(P<0.05). 신장(키)별로 보면 좋다는 165cm 이상

〈표 4-1〉 피부관리실에서 맞사지를 받아 본 경험유무

구 분	있다. 36.5(655)	없다 63.5(1138)	계 100.0(1793)
연령(세)			
20-29	24.8	75.2	100.0(686)
30-39	46.9	53.1	100.0(735)
40+	37.6	63.5	100.0(372)
	$\chi^2=75.37996$	df=2	p<0.001
결혼상태			
미혼	24.7	75.3	100.0(708)
유배우자	45.2	54.8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30.4	69.6	100.0 (69)
	$\chi^2=76.47941$	df=2	p<0.001
출신지역			
대도시	43.0	57.0	100.0(810)
중소도시	40.4	59.6	100.0(413)
읍면	24.6	75.4	100.0(570)
	$\chi^2=52.39048$	df=2	p<0.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28.0	72.0	100.0(225)
고졸	37.6	62.4	100.0(697)
대학학력	37.9	62.1	100.0(871)
	$\chi^2=8.09067$	df=2	p<0.05
직업			
주부	42.5	57.5	100.0(888)
학생	20.8	79.2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42.7	57.3	100.0(410)
	$\chi^2=72.91032$	df=2	p<0.001
경제상태			
상	48.3	51.7	100.0(346)
중	35.4	64.6	100.0(1155)
하	27.1	72.6	100.0(292)
	$\chi^2=32.48370$	df=2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37.3	62.7	100.0(973)
보통	36.7	63.3	100.0(716)
나쁘다	27.9	72.1	100.0(104)
	$\chi^2=3.61871$	df=2	p>0.05
키(cm)			
150-154	23.6	76.4	100.0(182)
155-159	38.6	61.4	100.0(684)
160-164	40.6	59.4	100.0(675)
165이상	29.4	70.6	100.0(252)
	$\chi^2=24.71419$	df=3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53.0	47.0	100.0(66)
약간 동등한편	34.6	65.4	100.0(589)
보통	35.9	64.1	100.0(920)
마른편	39.4	60.6	100.0(218)
	$\chi^2=9.63682$	df=3	p<0.05
얼굴피부성질			
건성	36.0	64.0	100.0(497)
지성	40.3	59.7	100.0(529)
중성	31.1	68.9	100.0(466)
복합성	39.2	60.8	100.0(301)
	$\chi^2=10.05757$	df=3	p<0.05

<표 4-2> 선크림 사용 여부 사지를 받아 본 경험유무

구 분	사용안함 32.8(588)	봄·여름에 사용 55.5(996)	사계절 사용 8.5(153)	기 타 3.1(65)	계 100.0(1793)
연령(세)					
20-29	29.4	60.3	5.7	4.5	100.0(686)
30-39	32.2	53.5	12.7	1.6	100.0(735)
40+	40.1	50.8	5.6	3.5	100.0(372)
	$\chi^2=47.76043$	df=6	p<0.001		
결혼상태					
미혼	28.7	58.7	8.6	4.7	100.0(708)
유배우자	33.4	55.3	9.1	2.3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66.7	33.3			100.0 (69)
	$\chi^2=50.98442$	df=6	p<0.001		
출신지역					
대도시	29.5	56.2	11.4	3.0	100.0(810)
중소도시	39.7	56.2	4.8	2.9	100.0(413)
읍면	32.5	56.8	7.2	3.5	100.0(570)
	$\chi^2=25.38004$	df=6	p<0.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46.2	47.1	3.1	3.6	100.0(225)
고졸	32.9	57.2	7.7	2.2	100.0(697)
대학학력	29.3	56.4	10.6	3.8	100.0(871)
	$\chi^2=34.94354$	df=6	p<0.001		
직업					
주부	35.8	54.8	7.0	2.4	100.0(888)
학생	27.7	61.6	6.1	4.6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32.4	49.8	14.9	2.9	100.0(410)
	$\chi^2=43.02587$	df=6	p<0.001		
경제상태					
상	24.9	60.1	11.3	3.8	100.0(346)
중	33.1	55.6	8.1	3.3	100.0(1155)
하	41.1	50.0	7.2	1.7	100.0(292)
	$\chi^2=22.11036$	df=6	p<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30.7	56.5	9.5	3.3	100.0(973)
보통	32.8	56.4	7.7	3.1	100.0(716)
나쁘다	51.9	40.4	5.8	1.9	100.0(104)
	$\chi^2=20.52037$	df=6	p<0.01		
키(cm)					
150-154	41.2	49.5	4.9	4.4	100.0(182)
155-159	35.4	53.1	8.9	2.6	100.0(684)
160-164	30.5	59.3	8.0	2.2	100.0(675)
165이상	25.8	56.7	11.5	6.0	100.0(252)
	$\chi^2=29.25727$	df=9	p<0.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28.8	66.7	-	4.5	100.0(66)
약간 뚱뚱한편	34.6	51.6	9.2	4.6	100.0(589)
보통	30.3	59.2	8.3	2.2	100.0(920)
마른편	39.4	47.2	10.6	2.8	100.0(218)
	$\chi^2=27.88802$	df=9	p<0.01		
얼굴피부성질					
건조성	28.8	56.1	10.7	4.4	100.0(497)
지성	28.9	58.4	10.0	2.6	100.0(529)
주성	40.3	51.9	5.8	1.9	100.0(466)
부합성	34.6	55.1	6.6	3.7	100.0(301)
	$\chi^2=30.01696$	df=9	p<0.001		

〈표 5〉 안면피부건강상태

구 분	좋다고 생각함 14.3(256)	보통 61.2(1097)	나쁘다고 생각함 24.5(440)	계 100.0(1793)
연령(세)				
20-29	17.1	54.5	28.4	100.0(686)
30-39	11.8	63.7	24.5	100.0(735)
40+	14.0	68.5	17.5	100.0(372)
	$\chi^2=27.61254$	df=4	p<0.001	
결혼상태				
미혼	17.8	51.3	30.9	100.0(708)
유배우자	12.0	67.6	20.4	100.0(1016)
독신(이혼, 별거, 사별)	11.6	68.1	20.3	100.0 (69)
	$\chi^2=48.42407$	df=4	p<0.001	
출신지역				
대도시	15.6	57.3	27.2	100.0(810)
중소도시	12.8	67.3	19.9	100.0(413)
읍면	13.5	62.3	24.2	100.0(570)
	$\chi^2=12.41345$	df=4	p<0.05	
교육수준				
중졸이하	8.4	70.2	21.3	100.0(225)
고졸	13.9	64.7	21.4	100.0(697)
대학학력	16.1	56.0	27.9	100.0(871)
	$\chi^2=23.38387$	df=4	p<0.001	
직업				
주부	10.4	67.5	22.2	100.0(888)
학생	17.8	49.3	32.9	100.0(495)
직장인 및 기타	18.5	62.0	19.5	100.0(410)
	$\chi^2=56.61421$	df=4	p<0.001	
경제상태				
상	23.4	59.5	17.1	100.0(346)
중	12.4	62.4	25.2	100.0(1155)
하	11.0	58.2	30.8	100.0(292)
	$\chi^2=39.04141$	df=4	p<0.001	
신체건강상태				
건강하다	17.0	62.4	20.7	100.0(973)
보통	10.6	63.1	26.3	100.0(716)
나쁘다	14.4	36.5	49.0	100.0(104)
	$\chi^2=54.89403$	df=4	p<0.001	
키(cm)				
150-154	15.4	62.6	22.0	100.0(182)
155-159	13.6	65.6	20.8	100.0(684)
160-164	13.6	57.0	29.3	100.0(675)
165이상	17.1	59.1	23.8	100.0(252)
	$\chi^2=17.14787$	df=6	p<0.01	
비만정도				
매우비만	18.2	50.0	31.8	100.0(66)
약간 뚱뚱한편	16.3	58.7	25.0	100.0(589)
보통	12.8	65.7	21.5	100.0(920)
마른편	13.8	52.3	33.9	100.0(218)
	$\chi^2=24.26874$	df=6	p<0.001	
얼굴피부성질				
건조	13.1	66.2	20.7	100.0(497)
기름진	13.2	53.7	33.1	100.0(529)
습윤	21.7	65.9	12.4	100.0(466)
합성	6.6	58.8	34.6	100.0(301)
	$\chi^2=98.64545$	df=6	p<0.001	

에서 17.1%로서, 나쁘다는 29.3%로서 160-164cm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1). 비만정도는 좋다는 매우 비만에서 18.2%, 나쁘다는 마른편에서 33.9%로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01). 안면피부성질로 보면 좋다는 중성에서 21.7%로 나쁘다는 34.6%로 복합성피부에서 높았다

6. 피부미용지식 및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피부미용지식 및 태도수준과 학력, 경제상태, 신장(키), 아침화장시간, 얼굴 맞사지 횟수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었고(P<0.01), 비만정도와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표 6>. 얼굴피부건강상태는 경제상태 및 신체건강상태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얼굴맞사지 횟수는 피부미용관리지식, 경제상태, 신체건강상태, 아침화장시간, 저녁화장시간과는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품사용 후 부작용 경험은 얼굴피부건강상태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아침화장시간, 저녁화장시간, 얼굴맞사지 횟수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7. 관련변수별 다중회귀 분석

1) 안면맞사지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면맞사지 횟수(Y)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특성,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및 화장행태(X1)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일반식은 아래와 같다.

$$Y = a + \sum_{i=1}^n b_i X_i$$

Y = 종속변수

a = 상수
 b_i = 각 독립변수의 기울기
 X_i = 각 독립변수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굴맞사지 횟수(Y)에 대한 독립변수(X_i)의 관계는 Y=1.098-0.115X₁(교육수준)-0.100X₂(피부부작용 경험)-0.0736X₃(신체건강상태)+0.0369X₄(출신지역)이었으며 각 독립변수의 기울기 b값과 상수 a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얼굴맞사지 횟수는 독립변수인 일반특성, 피부질환, 화장행태에 기여하는 정도는 교육수준(β=-0.162), 피부질환 경험유무(β=-0.074), 신체건강상태(β=-0.667), 출신지역(β=0.048) 변수였으며 설명력(R²)은 13.9%였다.

2) 안면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면피부건강상태(Y)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특성, 화장품 사용후 피부질환 및 화장행태(X_i)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방식은 <7-1>의 식과 같다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안면피부건강상태(Y)에 대한 독립변수(X_i)의 관계는 Y=0.832+0.118X₁(신체건강상태)+0.095X₂(경제상태)+0.005 X₃(연령)-0.077X₄(화장품 피부부작용 경험)+0.008X₅(저녁화장시간) 이었으며 각 독립변수의 기울기 b값과 상수 a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안면피부건강상태에 대하여 일반특성, 피부질환, 화장행태에 기여하는 정도는 신체건강상태(β=0.1378), 경제상태(β=0.1131), 연령(β=0.670), 화장품 피부부작용 경험(β=0.6222), 저녁 화장시간(β=0.0489) 변수였으며 설명력(R²)은 14.0%였다.

〈표 7〉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Classif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00												
2	-0.0416	1.0000											
3	0.1722**	-0.5757**	1.0000										
4	0.1031**	0.0504	0.0638*	1.0000									
5	0.0388	-0.7042**	0.4054**	-0.0459	1.0000								
6	0.0029	-0.1692**	0.1626**	0.1379**	0.0971**	1.0000							
7	0.1262**	-0.2033**	0.1605**	0.0429	0.1713**	0.0006	1.0000						
8	-0.0900**	0.0685*	-0.0963**	-0.0374	-0.0831**	0.1024**	-0.1553**	1.0000					
9	-0.0144	0.0471	-0.0164	0.1404**	-0.0382	0.1448**	-0.0173	0.0321	1.0000				
10	0.1342**	-0.0266	0.0275	0.1527**	0.0373	-0.0294	0.0200	-0.0556*	0.0150	1.0000			
11	0.0316	-0.0595*	0.0293	0.1545**	0.0254	0.0347	0.0527	0.0111	0.0619*	0.4614**	1.0000		
12	0.2742**	0.0020	0.0186	0.1657**	-0.0491	0.0684*	0.0447	0.0026	0.0281	0.2427**	0.2479**	1.0000	
13	-0.1124	0.0096	-0.0287	-0.0432	-0.0027	0.0165	-0.0451	0.0116	0.0561*	-0.0747**	-0.0842**	-0.0791**	1.0000

Remark : * : P<0.01 ** : P<0.001

- | | | | |
|---|----------|----|---------------------|
| 1 | 피부미용지식수준 | 8 | 몸매정도 |
| 2 | 연령 | 9 | 얼굴 피부건강상태 |
| 3 | 학력 | 10 | 아침 화장시간 |
| 4 | 경제상태 | 11 | 저녁 화장시간 |
| 5 | 결혼상태 | 12 | 얼굴맞사지 횟수 |
| 6 | 건강상태 | 13 | 일반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경험 유무 |
| 7 | 키 | | |

〈표 7-1〉 얼굴맞사지 횡수 회귀분석

Classification	b	SE B	Beta	Sig T
교육수준	-0.115149	0.016691	-0.161965	0.0000
피부 부작용 경험유무	-0.100084	0.031396	-0.074154	0.0015
신체건강상태	-0.073578	0.025828	-0.066534	0.0044
출신지역	0.036973	0.018060	0.047931	0.0408
Constant	1.098002	0.082093		
R ²		0.13942		
F		18.34559		
Significance		0.0000		

〈표 7-2〉 안면피부건강상태 회귀분석

Classification	b	SE B	Beta	Sig T
신체건강상태	0.117677	0.020252	0.137834	0.0000
경제상태	0.094711	0.010834	0.113100	0.0000
연령	0.004521	0.001590	0.067013	0.0045
화장품 피부 부작용 경험	0.076954	0.028735	0.062163	0.0075
저녁화장시간	0.007598	0.003660	0.048825	0.0380
Constant	0.832466	0.131437		0.0000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피부미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에서 1,200명과 경산시, 김천시, 목포시, 김해시 등 중소도시에서 800명 총 2,000명의 20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7개월간 조사한 바 그 결과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 사용후 피부 질환 경험은 있다가 43.3%였고 특성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학력자에서, 학생에서, 상류층에서, 대도시 출신자에서, 신체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에서, 피부성질이 지성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여드름으로 고생한 경험자는 48.9%였고 특성별로는 20대에서, 학생에서, 미혼자에서, 하류층에서, 키가 클수록, 지성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얼굴화장정도는 보통이다가 46.2%, 옅다가 21.5%, 아주 옅다가 17.8%, 짙다가 14.6%였으며, 화장이 옅다는 특성별로는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학생에서, 중졸이하자에서, 중류층에서, 미혼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고 짙다는 고졸자

에서, 직장인에서, 상류층에서, 독신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4) 맛사지 팩 사용시 피부 성질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율은 64.3%였으며 맛사지 팩의 부작용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55.1%였고 주의한다는 율은 27.4%였다. 그리고 맛사지 방법 인지도에서 모른다가 48.7%였고 부작용을 잘 알고 시행하는 경우는 12.9%였다.

5) 피부미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은 평균 10.61 ± 3.46 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53.1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점수를 상중하위로 분류하면 상위군이 18.9%, 하위군이 19.0%였다. 특성별로는 30대에서, 직장인에서, 미혼자에서, 대도시 출신자에서, 피부성질이 복합성인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6) 피부미용관리실에서 맛사지 경험률은 36.5%였고 특성별로는 30대에서, 대학학력자에서, 직장인에서, 상류층에서, 유배우자에서, 도시출신자에서, 몸매가 비대한 자에서, 키 160-165cm인자에서, 얼굴 피부가 지성인자에서 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7) 선크림 사용은 봄·여름에 사용한다가 55.5%로 가장 높았고 사용하지 않는다가 32.8%였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40대이상에서, 중졸이하에서, 가정주부에서, 하류층에서, 독신자에서, 중소도시 출신자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에서, 몸매가 마른 자에서, 피부가 중성인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8) 피부미용 관련지식에는 맛사지 횟수, 학력, 키, 안면피부질환, 연령, 몸매, 화장 시간 변수가 유의성있게 기여하였으며 이들의 설명력(R²)은 13.7%였다.

9) 안면맛사지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피부 부작용 경험, 신체건강상태, 출

신지역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R²)은 13.9%였다.

10) 피부미용지식 및 태도는 학력, 경제상태, 키, 아침화장시간, 얼굴맛사지 횟수와는 정상관계가 있었고 몸매와는 역상관계가 있었다.

11) 안면피부건강상태에는 신체건강상태, 경제상태, 연령, 화장품 피부 부작용, 저녁화장시간 변수가 유의하게 기여하였으며 이들의 설명력(R²)은 14.0%였다.

2. 제 언

1) 피부미용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즉 화장품과 팩의 부작용, 맛사지 방법, 체질, 올바른 미용지식태도에 대한 홍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피부미용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국민들이 건강관리차원에서 피부미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관련단체, 관련전문인이 정부의 건강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 화장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정도를 조사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고우석, 정진호, 윤재일 : UVB에 의한 한국 청소년층의 홍반량과 최소색소량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4, 32, 253-257
2. 권이혁 : 최신보건학, 신광출판사, 1993, 14-15
3. 김광호, 남철현, 이기남, 이선동 : 예방의학과 보건학, 계축사, 1996, 10-11
4. 김기연 : 피부관리학, 수문사, 1993, 57

6. 김낙인, 오희수, 이상수 : 여드름 환자의 혈 중 Testosterone 및 Dehydrosterone Sulfate 농도에 관한연구, 대한피부학회지, 1989, 27/1, 28-33
7. 김명숙 : 여성의 기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8. 김복희, 남철현 :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와 화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5, 21(2)
9. 김종대, 전성경, 최현숙 : 피부관리학, 고문사, 1994, 9-12
10. 남철현, 이규식, 정영일, 김명 : 보건학원론, 계축사, 1994, 4-5
11. 남철현 외: 공중보건학, 계축사, 1996.
12. 남철현, 박용익, 노병의, 유왕근, 이말순, 최연희 : 건강과 생활, 계축사, 1998, 257-267
13. 대한피부과학회 : 피부과학, 백양사, 1994, 62-67
14. 문창진 : 보건의료사회학, 신광출판사, 1990, 93-95
15. 미용교재연구회 : 최신판 종합미용이론, 1996.
16. 송진용, 박현애, 이순영, 김태정 : 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41-45
17. 송일병 : 알기쉬운 사상의학, 하나미디어, 1993, 33-36
18. 안성구, 이송현, 박윤기 : 피부질환, 고려의학, 1994, 131-133
19. 예민해, 남철현, 황연자 : 공중보건학, 1996, 170-173
20. 오덕자, 오세영, 최남희 : 건강사정법, 고문사, 1982, 48-49
21. 윤여성 : 신피부관리학, 도서출판 가림, 1996, 180-201
22. 윤철진 : Cosmetic II : 유신문화사, 1992, 7-24
23. 이광옥, 최영희, 최남희 : 가족보건학, 수문사, 64-69
24. 이창근 : 나는 어떤 체질일까, 양생의학사, 1993, 1-14
25. 이혁, 조성태 : 한방미용학 개론, 청구문화사, 1995, 129-145
26. 조영옥 : 여성과 화장품, 건강소식(10), 1993, 43-47
27. Evan R. Fammer, Antoinette F. Hood : Pathology of the Skin, Appleto Lange, A Publishing Division of Prentic Heal, 1990, 491
28. George F. Murphy, Martin C. Mithem : Skin, Robbins'Pathologic Basis of Disease(5ed), W.B.Saunders Company, 1994, 492
29. Jimbow K, Fitzpatsick TB, Wick MM : Biochemistry and Physiology of Melanin Pigmer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30. Matanasso SL, Glogan RG. : Chemical Face peels, Demato clin. 1991, 9, 131-150
31. Pochi PE : acne: Endocrinologic Aspectd, Cutis 1982, 30, 212

<Abstract>

Knowledge,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Skin Care of Women

Bok Hee Kim, Chul Hyun Nam

Graduate School KyungSan University Kyoungbuk Korea

A study on skin care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proper skin care program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to the consumers.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October 2, 1997 though April 30 1997 by using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1,793 from lug cities of Seoul, Pusan and , and 800 from medium and small cities of Kyongsan, Kimchon, Mokpo and KimHae cities. All subjects were females over 20 years.

1. 64.3% of the subjects said that they chose the massage packs after considering their skin condition. 55.1% of the subjects said that they did not know the side effects of the massage packs.
2. 53.3% of the subjects reported that they knew the cause of acne. and 73.3%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knew the nature of their body classified by oriental medicine.
3. The average knowledge and attitude was $10.61 \pm 3.46\%$ (who it is converted to percent, it is 53.1%). The upper limit was 18.9% and lower limit was 19.0%.
4. The factors which are under the influence on knowledge of skin care were the times of massage, education level, the height of subjects, disease of skin, age, the degree of fatty body, the hour of make-up($R^2=0.137$).
5. The factors which are under the influence on the times of massage were education level, the experience of skin side effect, the status of physical health and the birth place of the subjects($R^2=0.139$).
6. The main factors whic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tus of face skin health were the status of physical health, economic status, age, the side effect of skin cosmetic, and the hour of make-up($R^2=0.140$).
7.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raining package on side effect of cosmetics, massag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roper way of make-ups, and the public should be educated on the above mentioned areas.

Key words: Skin care, Knowledge, Behavior, Beauty care.